



마린보이 vs 썬양 빅매치 개봉박두

박태환, 21일 자유형 200m 출전...7월 세계랭킹 1위 기록
3회연속 3관왕 도전... 썬양과 200·400·1500m서 맞대결

9월 21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수영의 새 역사가 쓰인다. 한국수영의 간판 박태환(25·인천시청)이 마침내 자신의 세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에 오른다. 박태환은 21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200m에 출전해 한국 수영 사상 처음으로 대회 3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박태환은 이미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경기도 2학년생이었던 2006년 도하 대회에서 자유형 200·400·1500m 금메달을 쓸어들었고 2010년 광저우에서는 자유형 100·200·400에서 우승했다.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와 400m에서는 이제 대회 3연패를 노린다. 남자 자유형 200m는 이번 대회 경연에 걸린 38개의 금메달 중 첫 번째 주인을 가리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100·200·400·1500와 계영 400·800m, 혼계영 400m 등 총 7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3회 연속 다관왕에 도전하는 박태환으로서도 첫 종목인 자유형 200m가 이번 대회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승부처다. 분위기는 좋다.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을 겸해 7월 치른 MBC배 전국대회 자유형 200m에서 올 시즌 세계랭킹 1위 기록인 1분45초25에 레이스를 마쳤다. 당시 마지막 50m 구간 기록은 26초55로, 이는 박태환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최고 기록(1분44초80)을 작성할 때의 마지막 50m 구간 기록(26초77)보다 빠른 것이다.

아시안게임 수영 경기 역사상 개인 종목에서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한 것은 박태환이 남자 선수로는 처음이자 남녀를 통틀어 세 번째다. 하지만 자유형에서만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한 것은 박태환이 대회 역사상 처음이다. 자유형 200m에서 다시 한번 금빛 물살을 가르면 '3회 연속 3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할 대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아울러 통산 금메달 6개로 양창훈(양궁), 서정균(승마)과 함께 한국 선수 중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이 올라 있는 박태환은 최다 금메달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함께 아시아 수영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썬양(23·중국)과의 빅매치도 관심사다. 박태환과 썬양

은 자유형 200·400·1500m 세 종목에서 맞붙는다. 21일 자유형 200m를 시작으로 23일 자유형 400m, 26일 자유형 1500m에서 돌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진다. 박태환과 썬양은 자국은 물론 아시아 수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영웅들이다. 박태환은 수영 불모지 한국에 2회 연속 2개씩의 올림픽 메달을 안겼고, 썬양은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우승하며 중국 남자 수영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연합뉴스



슈퍼맨 아빠, 삼둥이와 성화 봉송

배우 송일국과 세 아들 대한·민국·만세가 17일 인천시 연수구 지타워 앞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박인비...개회식 스포츠 스타 총출동

이규혁·박찬숙·이형택 성화 봉송...기수단엔 엄홍길·이봉주 등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출발을 알리는 개회식에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저녁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하루 앞둔 18일 해설자료를 배포, 개회식을 빛낼 이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우선,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이자 모두의 공금증을 자아내곤 하는 성화 봉송자의 면면이 눈에 띈다. 인천의 시조인 두루미를 소재로 꾸민 성화봉을 들고 등장하는 첫 주자는 야구의

'국민타자' 이승엽이다. 역대 한국프로야구 사상 한 시즌 최다 기록인 5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올해도 최령 30홈런 기록을 경신하는 등 눈속임 없는 실력을 보이고 있는 이승엽이 배트 대신 성화봉을 들고 관객의 박수를 받는다. 이승엽은 메이저리그 4승에 빛나는 여자 골프스타 박인비에게 성화를 넘기고, 박인비는 한국인 역대 최다 기록인 6차례 동계 올림픽 무대를 밟은 스피드스케이터 이규혁에게 전달한다. 네 번째 주자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

림픽 동메달을 이끌어 한국 여자 농구의 신화로 불리는 박찬숙이다. 이어 한국 남자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대회 16강에 오른 스타 이형택이 다섯 번째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최종 주자는 체육 꿈나무인 두 명의 어린이에게 성화봉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화 점화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성화 점화에 앞서 태극기와 대회기를 들고 입장하는 기수단에도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태극기 기수단에는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완동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과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여자 골프스타 박세리,

서울올림픽 육상 3관왕 임춘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아련만의 영웅 석해군 선장과 배우 현빈, 발레리나 강수진, 한국 최초의 귀화 국회의원 이자스민 등도 함께 태극기를 든다. 대회기를 들고 입장하는 기수단도 한국 최고의 스포츠스타들로 채워졌다. 유도 하형주, 체조 여흥철, 핸드볼 윤경신, 배드민턴 박주봉, 육상 백옥자, 역도 장미란, 탁구 현정화, 하키 신정희 등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수놓은 스타들이 대거 포진했다. /연합뉴스

구기종목 최고 관심사는 '야구'

축구·배드민턴·핸드볼 순...20~50대 3000명 조사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구기종목은 야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서치 전문회사 피엠아이(PMI)가 20~50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기대되는 구기종목 1위는 야구(29%)였다. 야구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년 전 광저우 금메달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주장 박병호를 필두로 류중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6시 30분 태국과의 조별예선 첫 경기를 시작한다. 대표팀의 경계대상 1순위는 대만이다. 대만, 태국, 홍콩과 예선 B조에 속한 한국이 대만을 넘으면 사실상 조 1위를 확정 짓고 금메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축구(18.3%)와 배드민턴(13.8%), 핸드볼(10.1%) 등이 야구에 이어 기대되는 구기종목으로 꼽혔다.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는 '리듬 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꼽혔다. 손연재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개인종합 동메달,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종합 금메달의 쾌거를 이뤄냈다. 올 시즌에도 4월 리스본 월드컵에서 시니어 데뷔 이후 첫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 런던 월드컵에서는 개인종합 동메달을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노린다. 아시안게임 예매가 시작된 지난달에는 손연재가 출전하는 경기 티켓이 가장 먼저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다음으로, 기대감이 높은 선수 2위는 '마린보이' 박태환(24.3%)이다. 지난 두 대회에서 연속 3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 3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기계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도마의 신' 양학선(16.1%)이 3위,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 사격의 진중오(7.6%)가 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모저모

북한 선수단 공식 입촌식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이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공식 입촌식을 했다. 김병식 체육성 부상이 단장을 맡은 북한 선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예멘 등 5개국 선수단과 공동 입촌식을 치렀다. 입촌식에는 김병식 단장 등 임원과 축구, 역도 등의 선수와 감독 30여 명이 참석했다. 흰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 정장을 맞춰 입은 북한 선수단은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예멘에 이어 네번째로 행사장에 입장했다.

日 유명 코미디언, 캄보디아 대표로 마라톤 출전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캄보디아의 대표로 남자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 화제다. 총 20명에 불과한 캄보디아의 '미니 선수단' 가운데 한 명인 다키자키 구니야키(37)는 '네코 히로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코미디언이다. 키가 151cm에 불과한 그는 신체적인 특성을 살려 고양이(貓·네코) 캐릭터로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2005년 일본의 선수들과 유명인이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달리기를 병행하는 그는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꿈을 품고 2011년 캄보디아 국적을 얻었다.

마스코트 '물범 3남매' 기념품 판매 1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스코트인 '물범 3남매' 바라메, 추모로, 비추은 인형이 선수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념품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공식상품회사인 IB월드와이드는 18일 "지난 12일 선수촌 개촌에 맞춰 영업을 시작한 선수촌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물범 3남매 인형"이라며 "전체 기념품 판매 금액의 27%가 물범 인형이었다"고 밝혔다. IB월드와이드 관계자는 "17일 하루 동안 판매된 인형 개수만 610개다. 전날까지 2002개의 인형이 팔려나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